

긴 침묵 끝에 터져나온 깨달음의 사자후

휴암 스님 지음 「장군죽비: 누가 부처를 죽이는가」

이한구

성균관대 교수 · 철학과

불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종교이다. 부처의 본래적 의미도 '깨달음을 얻는 자'의 예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이룬 후에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어떻게 설법해야 될 것인지 고심하지 않았던가.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에 대한 깨달음인가? 그리고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인가?

30년 가까운 정진 끝에 펴낸 휴암스님의 「장군 죽비: 누가 부처를 죽이는가」(명상)는 바로 이 깨달음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파헤친 역저이다. 이 책은 스님들의 모임에서 행한 깨달음에 관한 기초강연을 재 정리한 것인데, 일반대중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하다 보니 본문보다 긴 주해설이 덧붙여져 있다.

스님들의 모임에서 행한 연설 쉽게 정리

단도직입적으로 휴암은 말한다. “깨달음이란 어떤 윤리적 자각이나 도리의 깨달음과 같은 것이 아니다. 불교에 있어서 깨달음이란 철두철미한 존재의 깨달음이다”(하권 15쪽) 이런 깨달음은 또한 철저한 이성의 주체적 자각에 기초를 둔다. 이 때문에 불교는 인간의 윤리적 도만을 문제시하는 유교와 다르며, 인간존재의 구원을 문제삼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신의 절대적 권한 사항으로 다루는 기독교와도 다르다.

휴암에 있어서 불교의 진정한 깨달음은 선악의 피안에 서 있다. “존재의 세계에서 근원적이라면, 선과 악을 구분짓고 따지는 마음을 훌쩍 버려야 한다.(하권 41쪽) 불교는 이미 죄에 대한 싸움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철저하게 현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고뇌에 대한 싸움을 말한다. “불교의 깨달음은 존재의 실현이 근본적이지 윤리적·도덕적 실현이 아니다.”(하권 254쪽) “깨달음의 세계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있어서 위로해 주고 돌봐 주고 하는 세계가 아니다.”(하권 237쪽) 그것은 인격적인 신들의 세계가 아니다. 유교나 기독교는 윤리나 가치를 위해 존재를 희생한다. 그러나 불교는 존재의 구제를 위해 가치를 희생한다.

그렇다면 존재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존재의 진상에 대한 근원적 반성이며 근원적인 진단이다. 우리는 존재론적 자기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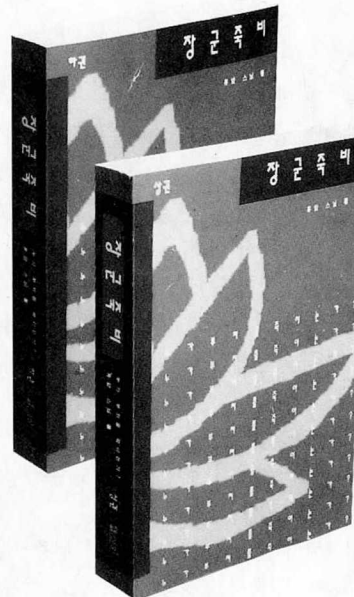
휴암은 말한다. “불교에 있어서 깨달음이란 어떤 윤리적 자각이나 도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존재의 깨달음이다”고, 이런 깨달음은 철저한 이성의 주체적 자각에 기초를 둔다. 이 때문에 불교는 인간의 윤리적 도만을 문제시하는 유교와 다르며, 인간존재의 구원을 문제삼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신의 절대적 권한사항으로 다루는 기독교와도 다르다.

을 통해 우리 자신의 무상함과 유한성을 자각하게 된다. 존재론적 입장에서 본 불교의 유위법의 세계는 그 어떤 훌륭함이나 위대함도 생사적 무상을 면치 못하는 몽환의 세계일 뿐이다.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라. 죽음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지 않는가. 사랑도 우정도 진실도 이상도 그 어떤 숭고한 동기도 죽음은 무의미로 몰고 간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서글픈 인간의 운명이다.

존재에 대한 이런 반성을 휴암은 존재론적 부정이라고 부른다. “존재론적 세계의 부정은 일체의 항구 불변적인 어떤 실체적 요소의 내재를 부정하고, 일체를 근원적으로 무상하게 보며, 일체 현상에 아(我)가 있다는 사고를 부정하는 것이다.”(상권 30쪽) 이것은 존재의 무상성을 한점 남김없이 두루 탐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상적 존재는 100% 부정된다. 공 아닌 존재현상이 없어진 것이다. 일체개공, 제행무상, 제법무아, 부정안 되는 것이 없다. 과연 이러한 부정에서 무엇이 건져 남을 수 있을까.

존재론적 반성 통해서만 ‘삼독’ 치유돼

휴암에 의하면 존재론적 부정은 부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끝내 긍정으로 환원된다. 전면적으로 부정된 절망적인 존재가 대공정적 환희의 빛 존재로 환원되어 나온다. 이것은 존재의 가난이 한이 되어 무작정 고향집을 떠난 한뫼한 청년의 감회어린 금의환향과도 흡사하다. 대공정적 환원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일체의 영상들은 산산히 부



서지고 끝없는 생사고의 파도가 출렁거린다. (전적인 부정적 현상) 파도가 차차 잔잔해진다. (파도는 부정되고 영상이 긍정되어 가는 현상) 이때 파도가 점점 출렁거림과 점점 잔잔해져 감의 관계를 상대적인 부정·긍정의 관계라고 한다면 한 점의 파도도 없는 순간을 파도의 전적인 부정 근원적인 부정이라 하고, 이 근원적인 부정의 순간과 동시에 영상이 잔잔한 수면 위에 또렷이 드러남의 순간을 영상의 전적인 긍정, 근원적인 긍정이라 할 수 있다.”(상권 253쪽)

더이상 잠겨들 수 없는 절망적인 부정의 심연에서 살아나온 긍정의 세계는 큰 죽음에 의해 완전히 구제된 비로자나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육체가 곧 진여이며, 색신이 곧 법신이며 일체 존재현상들이 곧 비로자나의 빛인 세계이다. 말하자면 밥 먹고 똥 누고 웃고 쩡 그리고 울부짖는 행위 그대로가 가치 그 자체가 되는 세계이다.

휴암은 이런 존재론적 반성을 통해서만 고통의 근원인 탐, 진, 치 삼독이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삼독은 의지적 노력으로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삼독과 의지와 관계는 곰팡이와 이끼의 관계와도 흡사하다. 이끼와 곰팡이가 습기를 뿌리로 해서 발생한 것처럼 삼독과 의지는 존재의 실체성에 대한 애착을 기초로 해서 돌아났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란 의지적·유의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무의지적 무의식적 무심적 노력의 수행방법으로 가능하게 된다.”(하권 456쪽) 무명이란 다름아닌 실재론적 실체관을 말한

다. 실재론적 실체관을 해소시키고 연기적 공관에 눈뜸이 무명의 타파며, 곧 깨달음이다.

의지적 노력에 의해 삼독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휴암은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삼독을 제거하려고 의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지의 근원인 존재에의 애착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삼독은 같은 뿌리인 존재에의 애착에서 돌아난 것이다. 이것은 흙탕물로 때를 씻으려는 것과 같은 자가당착이다.(하권 64쪽)

삼독의 제거는 존재가 뿌리째 뽑혀 존재의 바탕이 공한 줄 알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대정의 용광로는 모든 것을 녹인다. 그것은 중생의 백팔번뇌조차 타고르는 불길 위에 떨어지는 한 송이 눈꽃처럼 녹이고 만다.

이 책은 오랜 가뭄 끝에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비슷하다. 한자, 한 문장, 한 문단이 단순히 손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깊은 절대적 부정의 심연을 딛고 솟아난 말씀들이다.

긴 부정의 침묵끝에 터져나온 사자후

60년대 서울법대 재학시절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현실참여로 학생운동을 선도하던 성경섭, 그가 홀연 자취를 감추어 버렸을 때, 그를 아는 벗들은 오늘을 예감하지 않았던가, 언젠가 그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더없이 심오한 메시지를 가지고 짜라투스트라처럼 우리 곁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30년에 가까운 긴 부정의 침묵 끝에 터뜨린 그의 사자후는 거대한 죽비처럼 우리의 몽롱한 정신을 후려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은 비정할 정도로 날카롭고, 소리높여 개혁을 외치면서도 잣대에 더욱 관심이 있는 한국의 불교계와 부처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적 구도승들에 대한 그의 질타는 뇌성병력과도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한국의 모든 불교도와 불교계는 그가 던진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